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마련한 장막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예루살렘 백향목 궁에 거하지마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아래 장막에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17:4).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래로 집에 거하시지 않으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7:10).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장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삼상13:13-14)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와 그 궤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한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4절에 있는 '집'과 10절에 있는 '왕조'는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집'이나 '가옥' 또는 '가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네 힘으로 '바이트'를 세우지 말라(4절)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바이트'를 세워 주시겠다(10절)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이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17:11-14)"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울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7장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20절)"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조'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25절)."

동시에 이스라엘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 큰 복을 받은 민족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21-22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조'는 영적인 '그 땅'이요 영적인 '왕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조'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 즉 '회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22:5)."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복 있는 하나

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